

마지막으로 연을 날려 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으로 연을 날려 본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있다.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‘연 만들기’라는 단원이 있었기 때문이다. 담임선생님은 깡마른 광대뼈에 얹힌 빨테 안경을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다.

“여러분, 마음을 담아 연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연에 담긴 마음을 하늘 높이 날리는 겁니다.”

정말 근사한 말이라고 생각했다. 저 말 덕분에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. 처음 연을 날린 것은 초등학교 삼학년, 열 살 때다.

방과 후의 학교 앞 문방구에는 ‘전통 연 만들기 키트’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나는 고심 끝에 가오리연을 골랐다. 집에 돌아와 호기롭게 키트를 뜯었지만 연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. 처음 두어 개는 제대로 완성도 못된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, 엄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완성된 가오리연의 물결은 ‘이게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?’ 싶을 정도로 꼬질꼬질했다. 엉겨 붙은 풀과 손때로 범벅이 된 내 연은, 그러니까, 흉어처럼 보였다. 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짝 마른 채 파리가 꼬인 흉어.

다음 날,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연을 날려보게 되었고, 당연히도 내 흉어연은 날지 못했다. 실을 손에 쥐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달음박질 쳐도 흉어는 뱅글뱅글 돌다가 운동장 바닥에 코를 처박을 뿐이었다. 여기저기서 킁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. 하지만 그 망신살보다도 더 속상했던 건 내가 ‘마음을 하늘 높이 날리’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.

무슨 오기였을까, 학교의 ‘연 만들기’ 단원이 끝났음에도 한동안 나는 돈만 모이면 연을 사러 문방구로 달려갔다. 연 만들기와 날리기에 반복해서 실패할수록, 연에 담아 날릴 ‘마음’ 같은 건 희미해져갔다. 아니, 오직 이 연이 제대로 날았으면 하는 바람만이 연에 담겨갔다. 그래서 내가 끝끝내 연을 제대로 날리는 데에 성공했던가? 이상하게도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

마음을 담아

- 이의록의 첫 개인전

〈두 눈 부릅 뜨고〉에 부쳐

김동규 / 작가

그러므로,

‘연에 담기는 마음’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. 지금 나는, 하자 없이 완전한 한 점의 연을 떠올려보자. 태풍이 와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당당한 그런 연을 떠올려보자.

연을 붙잡은 채 달리기 시작하는 내 다리에 근육이 붙는다. 돌진하는 내 땀박질이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 쯤, 실을 붙잡은 내 주먹이 살며시 펼쳐지고 연은 못이기는 척 허공으로 둥실 떠오른다. 실패에 감겨있던 실은 눈 깜짝 할 새에 모두 풀려 나가 버린다. 두 시 방향으로 뽕뽕히 당겨진 실. 고개를 돌려 올려다보니 연은 이제 한 점 부끄럼 없는 창공에 붙박혀있다. 하염없이 연을 올려다보는 내 두 발도 단단한 운동장 바닥 위에 붙박힌다.

지금 이 순간, 연과 나는 1:1이다. 제3자도, 제3의 풍경도 없다. 나는 연을 통해 무엇을 보려 하지도, 연을 통해 어딘가로 가려하지도 않는다. 연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신체는 고스란히 연의 시선 아래 노출되고, 창공에 뜬 연은 조용히 실을 통해 저 하늘 높은 곳에 붙어 닳치는 바람의 진동을 내 손 끝에 전한다. 그 촉각은 오히려 연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환기한다. 이 메시지의 어디에도 도착(倒錯)적인 요소는 없다. 그리고 도착되지 않는 모든 욕망은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마련이다.

나는 다시 한 번 떠올린다. 저 멀리 바람을 받아 한껏 부푼 연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과 무심한 듯 손끝에 묶인 실을 끊어내는 장면을. 그리고, 도저히 손닿지 못할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저 연이 못내 내게 속삭이는 목소리를.

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의 질감을 나는, 도저히 가시화할 수가 없다.